

# Poly Village

PolyMirae Magazine  
2016 Autumn / Winter Vol.38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다가옵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같이 동고동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폴리미래는 효율적이고  
선도적인 기술로 고객의 기대  
그 이상을 실현해 갑니다

PolyMirae has world leading technology  
that meets customer needs  
with high quality polypropylene products.



폴리미래 여수공장  
PolyMirae Yeosu Plant

폴리마을 통권 제38호  
발행인 말티노 가벨리치  
발행처 폴리미래주식회사  
PolyMirae Magazine  
Poly Village Vol.38  
2016 Autumn / Winter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기획 사보기획팀  
디자인 · 제작 위고커뮤니케이션즈(02-3432-770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TEL (02)2167-8914

PolyMirae Magazine

2016 Autumn / Winter Vol.38

Poly Village

### Poly & Business

- 04 CEO Message
- 06 기술이 미래다  
4차 산업을 향한 폴리프로필렌(PP)의 도전 - 기술담당임원 하구열 상무
- 08 특집  
석유화학 경기 낙관적 전망을 경계하는 이유 - LG경제연구원 임지수 연구위원
- 14 뉴스 브리핑

### Poly & People

- 22 현장 리포트  
폴리미래 가족의 날  
여수공장 한마음 체육대회
- 26 폴리미래 CSR  
우리 마음에 그린 사랑, 문수동 벽화 그리기  
사랑으로 만든 책가방으로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다
- 30 포커스  
완벽한 한 우승팀의 날 (1 Perfect Winning Team Day)
- 32 여행 이야기  
청춘과 낭만의 대지, 몽골
- 36 파워 인터뷰  
“좋은 회사에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 배지형 사우

### Poly & Relax

- 38 힐링 메시지
- 40 라이프 트렌드  
지는 ‘앱’, 뜨는 ‘봇’ - 김영대 연합뉴스 월간마이더스 기자
- 42 퀴즈세상

# 폴리미래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말티노 가벨리치 대표이사/사장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열정적인 리더십으로 당사에 많은 공헌을 해주신 잔루카 브레샤 前 대표이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가 새로운 역할을 맡은 유럽의 Lyondellbasell에서 앞으로도 큰 성공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폴리미래를 이끌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와의 협업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폴리미래 모든 임직원의 헌신과 열정은 매우 특별합니다.

폴리미래는 지난 몇 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은 이루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함께 여정을 시작하는 새로운 단계로써 업계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여정은 명확한 목적과 사명감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폴리미래는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및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폴리미래의 역량을 개발하고 기술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한편, 고객과 공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관계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폴리미래의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국을 증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아시아의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합시다.

신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 행복과 성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말티노 가벨리치 대표이사/사장



# 4차 산업, 전기차 시대를 향한 폴리프로필렌(PP)의 도전

기술담당임원 하구열 상무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산업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물리학, 기계, 화학, 생물학 등의 분야가 상호 교류, 융합하여 인류의 문명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호에서는 우리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분야가 자율주행 등의 IT기술과 접목되어 전기차 시대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환경에서 폴리프로필렌(PP)의 기회요소와 도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전기차의 혁명, 국제에너지기구(IEA) “2025년 3천만 대” 예측

환경과 에너지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고효율 연비 실현을 위한 전동화 시대를 대비하여 배출가스 제로에 도전하는 무공해 자동차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자동차의 연비규제를 매년 4~5%씩 강화하고 있으며 무공해 자동차 및 신 에너지차의 시장 확대를 위한 의무 판매 및 구매 지원정책도 신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아직 전기차 구매에 소극적이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은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차 개발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 관련 보고서에서 연비 기준 강화와 세제 혜택 등으로 우리가 이미 전기차 혁명 시대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부터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까지 각 자동차사들의 전기차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전장 부품사와 큰 개발 동맹도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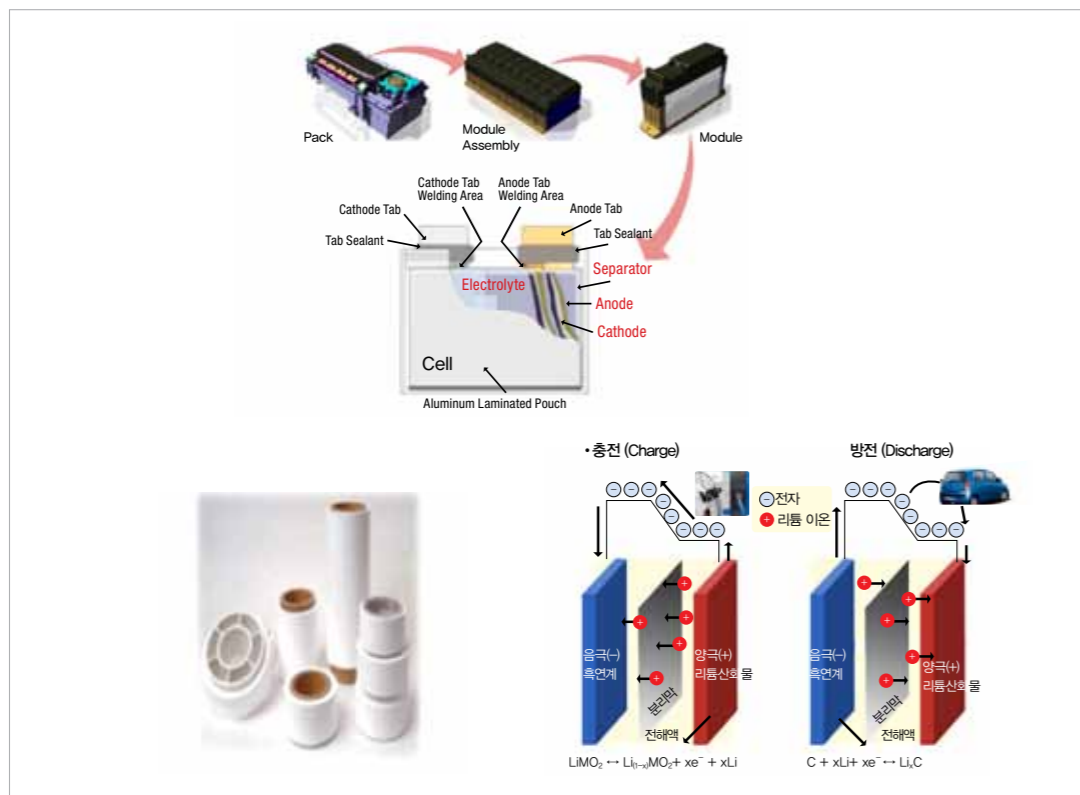
### 전기차 소재 산업의 요구 방향

전기차의 플라스틱 소재 개발 방향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화석 연료 엔진이 제거되면서 후두상판 및 엔진 룸에 요구되던 재료의 고 내열성, 내 약품성의 요구조건이 줄어든다. 특히 엔진, 트랜스미션이 없어지면서 고질적 품질 문제였던 오일 누수 등의 문제점이 사라짐에 따라 품질보증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냉각수를 이용한 쿨링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냉각수 누출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냉각수 자체의 사용량 또한 감소하게 된다.

반면 공기도입 공조 시스템, 실린더 헤드 덮개 부품 등에 필요한 성능의 최적화로 인한 리사이징(Resizing)이 요구되고, 전장부품과의 내장제, 외장제에 대한 요구 조건들을 만족하는 동시에 난연성 Vo 등급 및 대전 방지 성능이 강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전기차를 지원하기 위한 적정 소재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그 개발이 경량화와 고기능성화를 중심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용 다공성 폴리올레핀 분리막 소재

전기차에는 환경 및 연비효율을 고려하여 체적 에너지 밀도가 뛰어난 리튬 이온전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차세대 자동차의 전기 고분자 재료 중에서 전기차용 리튬 이온전지의 폴리올레핀계 다공성 필름 분리막에 대한 재료적 측면을 고려해보면 고분자가 맡은 역할이 크다. 전기차에는 엄격한 수명특성이나 온도특성을 가지는 고성능 리튬 이온전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리튬 이온 전지에서 분리막의 역할



리튬 이온전지는 리튬을 흡장, 탈리할 수 있는 전극, 그리고 부극 활성물질과 리튬 이온을 전도할 수 있는 전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튬 이온전지의 분리막에는 폴리프로필렌(이하 PP), 폴리에틸렌(이하 PE) 등의 폴리올레핀의 미세한 다공질막이 사용되는데 다공질막은 PP, PE의 층상 구조 등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여 제조된다.

분리막을 제조할 때는 탄화수소 용매나 다른 저분자 재료와 PP, PE를 혼합시킨 후에 필름을 형성시킨다. 이와 같이 제조한 PP, PE의 미세 다공질막은 부직포와 비교하여 막 두께가 얇고, 정극과 부극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리튬 이온의 이동확산 저항을 낮추는 이점이 있다. 만약 정극과 부극이 합선하여 이상반응을 일으켜 발열한 경우, 분리막의 결정상이 응점에 이르러 용융함으로써 리튬 이온의 이동을 정지시켜 배터리 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EV, HEV, PHEV 등), 대용량 전력 저장 시스템(ESS) 등에 사용되는 중대형 이차전지에는 안정성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분리막이 요구된다. 특히, 리튬 이차전지의 고용량화 및 고출력화에 대응하여 전지의 안전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리막에는 현재 다공성의 폴리올레핀계 필름이 사용되고 있다.

PP로 제조된 다공성 필름은 이차전지용 분리막으로써 내열성이 우수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다공성 필름을 제조할 때는 PP의 결정화된 미연신 시트를 열처리한 후 냉연신과 온연신 공정을 거쳐 다공성 필름을 제조하는 방법과, PP의 β구조로 결정화된 시트를 연신하여 제조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이차전지 기술이 발달된 업체를 중심으로 메탈로센 PP를 이용한 분리막 제조 기술들이 보고 되고 있으며 우수한 재현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와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폴리미래의 특화된 메탈로센 기술로 생산된 메탈로센 호모 제품과 랜덤 코폴리머 제품은 내열성이 우수하고 불순물이 적으며 분자량 및 녹는점 제어 등이 쉽고 재현성이 우수하여 미래의 분리막 재료로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올해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자동차는 100만 대가 채 안 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 관련 보고서에서 연비 기준 강화와 세제 혜택 등으로 이미 우리가 전기차 혁명 시대로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3천만 대, 2040년에는 1억 5천만 대의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대 변혁기에 소재 수요 시장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요구 조건에 잘 대응하여 전기차 시대에도 경량화, 고기능성을 갖춘 자동차 소재 공급자로서의 폴리미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석유화학 경기 낙관적 전망을 경계하는 이유

LG경제연구원 임지수 연구위원

최근 한국 석유화학산업에 대하여 상반된 시각들이 공존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업종으로 거론되는가 하면, 상반기 실적도 좋고 하반기 전망도 양호한 업종이라는 발표도 나온다. 또 중장기적으로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대형 설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중기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업계는 양호한 업황을 기반으로 향후 산업경기 전망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원료설비(나프타분해설비)를 보유한 전통 석유화학기업들의 경영실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또 상당수의 합성섬유원료나 합성고무, 우레탄 등 개별 제품 기업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극적인 감산과 원료가격 하락 수혜로 수익성이 소폭 개선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양호한 업황이 올해까지 유지되고, 미국 신규설비들이 가동되는 2017년 하반기 또는 2018년부터 하향 조정기간을 거칠 것이라는 시각은 대체로 유사하다. 문제는 중장기에 대한 부분이다. 최근 거시 환경 변수나 경쟁구도 변화를 볼 때,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를 예상보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요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매년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장기 경제전망은 여전히 회복될 것으로 보는 발표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전망에 기반하여 추정되는 중기 석유화학 수요도 양호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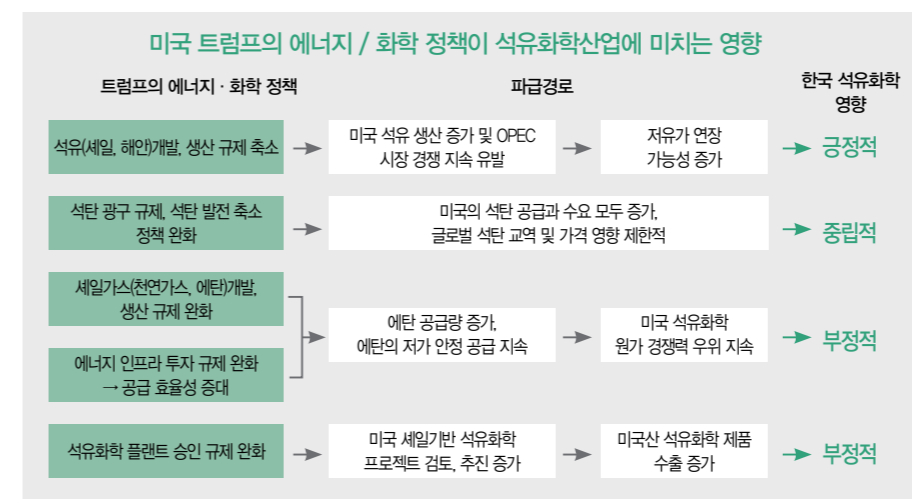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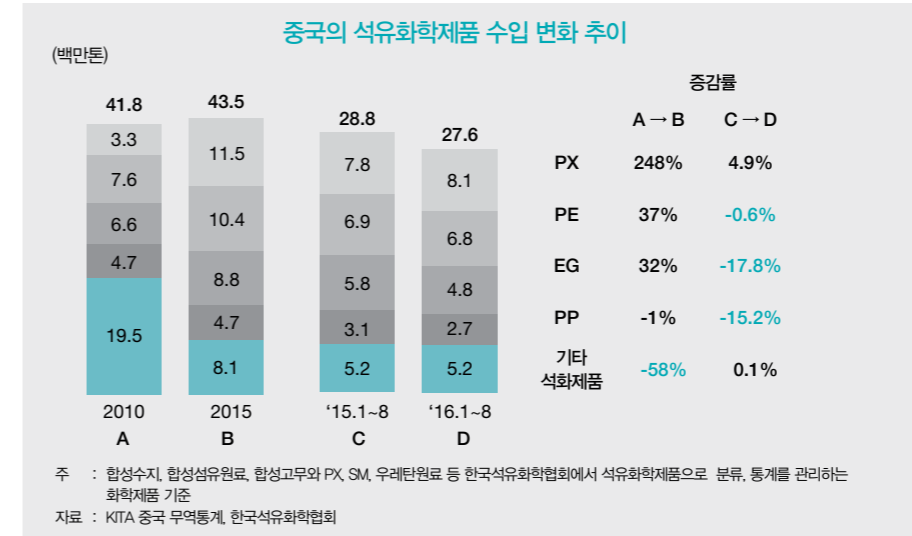
둘째, 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리스크다. 배럴당 30~40달러 수준의 저유가는 원료가격의 큰 하락대비 최종 제품가격 하락은 제한적이어서 일단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배럴당 70달러 이상의 고유가 환경으로 바뀔 경우, 원가 부담은 높아지는 반면 석유기반의 석유화학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은 가스 및 석탄 기반 기업들 대비 원가경쟁력 약화로 이종고가 불가피하다. 현재 주요 유가 전망 기관들은 2020년 석유가격을 배럴당 60에서 80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유가가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셋째, 중국시장의 자급화가 석유화학 전 제품으로 확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석유화학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갖는 제품이 이제는 기능성제품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능성제품에서 중국기업들의 약진은 공격적인 글로벌 M&A, 금융기관을 통한 정부의 R&D 및 설비투자 지원, 성별로 잘 짜여진 산학협력 시스템 등을 통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네 번째 리스크는 최근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석유화학 설비투자 검토 및 추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붐은 이미 진행되는 미국 셰일기반 투자 외에도, 이란 및 중앙아시아 등 천연가스 자원보유국과 일부 잉여자본이 충분한 석유 및 석유화학 기업들이 개도국 수출시장을 타깃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의 셰일가스 기반 투자도 지속적인 추가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프로젝트 건수가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추가 검토되는 계획들 중 과반수 정도만 추진되더라도 중장기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석유화학산업 경기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어떤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 기업 스스로가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형 설비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제품/품질 고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현재 상황은 타 장치산업 대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 우호적인 현 시점이 향후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적기이다. 우리 회사의 사업은 다를 수 있다는 낙관적 편향이 나타나는 순간, 내부 논리에 빠져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요한 것은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는 사업의 객관적 상황과 리스크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공유하면서, 충분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체질 구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기술 교류 회의에 참석한 폴리미래와 LyondellBasell 직원들

## LyondellBasell과 기술 교류 회의

회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이탈리아 페라라에 위치한 LyondellBasell의 연구개발센터에서 연례 기술 교류 회의를 열었다.

본 회의에서는 폴리미래의 기술 담당 임원인 하구열 상무를 비롯한 기술팀 직원들과 제조 부문의 생산 및 공정팀이 참석하여 분야 별로 심도 있는 토의를 이끌었다.

참석자들은 2016년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기술적 이슈에 관하여 점검하고, 자동차, 포장재료, 섬유, 파이프, 의료용 소비재 및 일반 소비재 등의 분야에서 2017년에 개발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폴리머 구조 설계, 특징, 제조방법, 지적재산권, 실험 평가기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였다. 특히 LyondellBasell의 새로운 5세대 촉매 기술 등 새로운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회사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신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 더욱 차별화된 제품 개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LyondellBasell가 개발하여 독일 K-Fair에서 처음으로 시연한 3D Printing FDM(Fused Deposition Model)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PO 필라멘트 재료에 관해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공동 개발 등의 기회를 논의하기로 했다.

회사는 이와 같은 기술교류를 통해 우수한 신제품 출시뿐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판매 시장을 다양화 하는 등 폴리미래가 PP 전문기업으로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담당임원 하구열 상무



폴리미래의 주요 신제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영업 및 시장개발팀 정승호 팀장

## 폴리미래 - 세프라 기술 세미나 개최

2016년 6월 8일, 회사는 PP컴파운드 고객사인 세프라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폴리미래의 주요 신제품 소개 및 폴리미래 PP의 중합공정의 특징과 장점,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요 동향 등이 다루어졌다. 세프라는 최근 글로벌 자동차 사업 부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PP컴파운드의 기술적 차별화를 꾀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가 폴리미래의 차별화된 포트폴리오와 제품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영업 · 시장개발팀 정승호 팀장

## 독일 2016 K-Fair 참관

김방현 전무(영업 및 마케팅 총괄임원)와 일부 영업 부문 직원들이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K 2016 세계 플라스틱 & 고무산업 전시회(이하 K-Fair)에 참관했다. K-Fair는 3년에 한 번씩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전시회로서,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최신 동향 및 경쟁사 제품의 개발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폴리미래는 이번 전시회 참관을 기회로 유럽의 신규 고객 개발 및 유럽 수출 판매를 확대하고 유럽의 판매 채널인 BSM(Basell Sales&Marketing Company B.V)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K-Fair에서는 Automotive, Nonwoven, Textile 부문에서 19개 주요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 메토센을 홍보하고, 메토센에 대한 유럽 신규 고객 및 BSM 대리점 등을 유치하여 메토센의 판매 기회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BSM 마케팅 매니저들과 유럽 시장의 메토센 판매 확대를 위한 유익한 논의를 진행했다.

영업 · 시장개발팀 정승호 팀장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강은혜 과장

## 중국 고객과 기술 세미나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5일 LyondellBasell 중국지역의 ISBM(Injection Stretching Blow Molding)과 EBM(Extrusion Blow Molding) 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 광저우에서 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80여개의 중국지역 Blow Molding 업체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기술인 Advanced PP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폴리미래의 Advanced PP제품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한층 더 발전된 포장용품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날은 폴리미래와 LyondellBasell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고투명, 고풍택, 고순도 PP인 메토센 제품과 충격과 투명 밸런스를 높인 EBM용 PP가 가지는 장점과 특징을 소개하여 많은 고객들 관심을 끌었다. 이와 같이 특화된 제품과 관련된 기술 세미나를 통해 향후 중국의 Blow Molding 시장에서 폴리미래의 제품이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술팀 강은혜 과장



P&G와의 기술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현장

## P&G와 기술세미나 개최

회사는 지난 7월 20일 글로벌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P&G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P&G의 기술연구센터에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회사는 P&G가 폴리미래와 LyondellBasell의 앞선 기술인 메토센 PP를 사용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한층 더 발전된 포장용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다. 회사는 이러한 기술 세미나를 통해 향후 활발한 제품 개발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담당임원 하규열 상무



마케팅 회의 후 친목을 도모하는 저녁자리에서 BAP와 폴리미래 직원들

## BAP(Basell Asia Pacific)와 분기 마케팅 회의 개최

회사는 지난 7월 6일과 10월 5일, 각각 홍콩 LyondellBasell 사무실과 한국 폴리미래 본사에서 매년 분기별로 진행되는 BAP(Basell Asia Pacific) 마케팅 회의를 진행했다. BAP 마케팅 회의는 우리 회사 제품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을 담당하는 판매 채널인 BAP와 분기별로 진행되는 회의로써, 영업, 마케팅, 기술 등 관련부서가 모여 수출과 관련된 모든 상업적, 기술적인 현안과 시장 동향 등을 논의하고 향후 시장 방향의 예측 및 개발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정보 교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폴리미래와 BAP는 현재 진행 중인 스페셜티 제품들의 TFT(Task Force Team) 프로젝트와 신규 시장개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영업 · 시장개발팀 정승호 팀장

## 물류운영 및 안전환경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SunAllomer 여수공장 방문

지난 8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라이온델바젤의 일본 합작사였던 SunAllomer의 안전환경, 공무, 물류 부서 7명의 직원들이 폴리미래 여수공장을 방문하여 각 분야의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안전 분야의 협력 업체 관리, 공무 분야의 현장 작업 관리, 물류 분야의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및 벌크 배송 시스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과 노하우를 교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안전환경팀 박 철 대리



Best Partner Award에 참석한 최우수 협력업체들과 폴리미래 임직원들

## 2016 베스트 파트너 시상식 개최

지난 11월 14일 회사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폴리미래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7개 업체(국내 5개 업체, 해외 2개 업체)를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하여 베스트 파트너 기념패를 수여했다. 폴리미래의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은 이 자리에서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공급 업체들에 직접 기념패를 수여하고, 앞으로도 공급사, 고객사, 임직원 및 주주와 공동체를 형성하여 더욱 건강하고 건설적인 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행사는 폴리미래 출범 이후 최초로 시행된 행사로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폴리미래의 기대와 의지가 담겨있다.

구매팀 정동수 팀장

## 현장전문직 평가제도 개선 프로젝트

회사는 현장 전문직 성과평가제도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 말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평가제도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TFT는 인사 · 노사협력 팀장을 비롯하여 생산팀장, 조업과장, 교대대리, 교대조원 등 다양한 부서, 직급별 구성원이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9월 초까지 총 세 번의 회의에 걸쳐 많은 개선점 및 솔루션을 도출했다.

본 프로젝트의 결과로 지나치게 복잡한 평가 항목을 보다 단순화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성과 평가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나 평가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들이 마련되었다.

회사는 보다 개선된 평가제도를 통하여 직원들이 정확한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의 과정을 통하여 평가제도가 피평가자들의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사 · 노사협력팀 김기영 과장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교육 시행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되었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20여일 앞둔 지난 9월 8일, 회사는 법률자문회사 소속의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본사와 공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금지되는 금품수수의 범위 및 부정청탁의 내용 등의 주요사항과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법규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과 우리 직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향후 회사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

기업지원 및 재무 총괄임원 조성출 상무

## 니어 미스 콘테스트 (Near Miss Contest)

올해 초, 회사는 그 동안 폴리미래의 발전은 탁월한 운영 효율성에 대한 철학과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고 이 두 가지 경영철학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일상의 업무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니어 미스 콘테스트(Near Miss Contest)'를 개최했다. '니어 미스 콘테스트'란 우리의 일상 업무에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 분석하고 이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그 중 최고의 위험평가 및 개선 아이디어에 포상하는 이벤트를 말한다. 회사는 각 담당 임원을 통해 수상자를 선발하고 6월에 열린 '완벽한 한 우승팀의 날' 행사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콘테스트의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다음과 같다. (김승현 대리, 박용군 대리, 박태모 대리, 손정용 대리, 위정환 부장, 이길중 부장, 이원창 차장, 전규범 부장, 정동수 부장, 최석조 부장 (가나다 순))

인사·노사협력팀 유민희 대리

## 완벽한 한 우승팀의 날 (1 Perfect Winning Team Day)

회사는 지난 6월, 작년에 실시한 1 Winning Team Day 프로그램에 이어 1 Perfect Winning Team Day라는 이름으로 충남 부여에서 1박 2일에 걸쳐 전 직원 집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나의 '완벽한' 우승팀으로서 안일함과 싸우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보다 더 완벽한 하나의 팀으로서 기능하며



니어미스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최석조 부장과 시상자인 잔루카 브레사 (前)사장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잔루카 브레사 (前) 사장

지속적인 성과와 성장을 이뤘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EO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에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 돌아보고 안일함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한 달간 실시된 NMC 콘테스트(Near Miss Contest)에서 선발된 직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또한 외부 초청강사 특강 시간에는 자기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일상을 다르게 보며 나를 개선하는 마인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 서로 떨어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서울과 여수의 직원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고, 웃음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의 우승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30페이지 포커스에서 만날 수 있다.

인사·노사협력팀 김가영 과장

## 2016년 안전의 날

LyondellBasell과 그 합작사의 전 사업장에서는 매년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안전의 날(Global Safety Day)'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폴리미래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사업장(The Cleanest Site In The World)'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6월 8일 행사를 실시했다.

여수공장에서는 공장의 전 직원 및 협력 직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비상 대응 훈련, 안전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안전 활동이 진행되었다. 한편 본사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과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안전의 날(Global Safety Day)' 행사는 이제 폴리미래 안전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안전환경팀 박철 대리

## 노사 합동 워크샵 실시

지난 7월 8일, 노동조합 집행부와 인사·노사협력팀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협상을 위한 방향, 상호 존중하는 노사관계 등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 합동 워크샵을 실시했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 서로의 안전에 대해

사전 공유하고 서로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관계 정립과 효율적인 협상을 위하여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그 중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출발하는 노사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인사 · 노사협력팀 성상훈 부장

## 공장 여름 가족행사(Summer Kids Day) - 단체 야구관람

지난 8월 17일, 공장의 여름 가족행사로 100여 명의 여수공장 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KT위즈와의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고 있었기에 기아 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신생팀인 KT위즈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승패와 관계 없이 우리 직원들과 가족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함께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응원을 하며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여가 시간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생활의 피로와 스트레스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인사 · 노사협력팀 성상훈 부장

## 2016년 임금 및 단체 협상 체결식

지난 2016년 10월 28일, 폴리미래 서울 본사에서 노동조합과 회사의 2016년도 임금 및 단체 협상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정원희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과 회사를 대표하여 잔루카 브레샤 (前)사장, 윤기엽 공장장, 인사 및 노사협력팀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및 단체 협상 타결안에 대해 서명하고 교환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체결식에서 올해의 교섭과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설적으로 진행되었음에 동의하고 향후 건전한 노사 관계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인사 · 노사협력팀 전규범 팀장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체결식을 마치고 악수를 나누는 정원희 노조위원장과 잔루카 브레샤 (前)사장



서울 본사의 장기근속 포상 대상자 - 신준식 부장, 송경식 차장, 정승호 부장, 권진홍 차장, 장문영 차장, 박재하 과장 (잔루카 브레샤 (前)사장(가운데)을 제외하고 왼쪽부터)



공장 직원들이 벽화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본사 직원들이 손바느질로 직접 만든 책가방을 자랑하고 있다

## 창립 16주년 행사 및 장기근속자 포상

2016년 9월 1일 회사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 본사와 공장에서 각각 기념식을 가졌다. 잔루카 브레샤 (前)사장은 폴리미래의 임직원들을 비롯하여 지난 16년 동안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원해 준 고객, 주주, 공급업체와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협력과 전문지식으로 폴리미래가 앞으로도 계속 능력을 발전시켜나가서 아시아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이며, 함께 성공적인 미래를 만나길 기대한다는 결의를 나누었다. 한편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장기근속자들의 노고와 공헌을 치하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하며 전 임직원이 함께 이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사에서 6명, 공장에서 13명, 총 19명의 직원들이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인사 · 노사협력팀 전규범 팀장

## 2016년 폴리미래 사회봉사활동

본사와 공장에서는 2016년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공장에서는 상하반기 총 두 번에 걸쳐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는데 여수시 문수동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문수동 장애인 거주지역 및 우범지대에 해바라기와 코끼리 그림, 아이들이 뛰어 노는 놀이터 등에 아름답고 화사한 벽화를 그려 넣었다. 벽화 그리기는 지역사회의 미관을 좋게 해주면서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다. 문수동 주민들은 벽화가 완성되는 동안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자녀들과 함께 완성된 벽화를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으로 화답하여 우리 직원들의 뿌듯함과 보람을 두 배로 만들어 주었다.

한편, 서울 본사에서는 11월 22일, 월드쉐어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 활동에 동참하여 저개발국가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책가방을 손수 만들어 기부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오랜만에 해 보는 손바느질이 익숙치 않은 듯 보였지만 서툰 솜씨로도 다들 멋지게 제각각의 책가방을 완성하였다. 책가방과 함께 기부 된 소정의 기부금은 필수적인 학용품을 구입하여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데 쓰여질 예정이다.

인사 · 노사협력팀 황상호 대리



체육대회에서 버블슈트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가족들

## 2016년 여수공장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회사는 매년 직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8일 토요일 여도중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여수공장의 전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체육대회에서는 180여 명의 대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배구 및 족구, 단체줄넘기, 커플 링보, 여성 팔씨름 대회 등 다양한 운동경기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 버블슈트 경기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들이 참여하여 넘어지고 구르며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참석자들은 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준비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직원 및 가족들간 안부를 묻고 친목을 도모했다.

또한 이 날은 잔루카 (前)사장의 후임으로써 당시 사장 지명자였던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님과 가족이 모두 참석하여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었다. 운동경기, 친목도모와 함께 직원들을 위한 많은 상품이 준비된 가운데 사장 특별상이었던 특별여행상품권의 행운은 생산3팀의 황훈 팀장과 생산1팀의 김기신 사우에게 돌아갔다. 사고 없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치뤄진 이번 체육대회는 직원간, 그리고 직원과 경영진간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인사 · 노사협력팀 황상호 대리

## 2016년 본사 가족의 날 행사

지난 10월 28일 서울 한남동에서 폴리미래의 본사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가족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날은 특히 잔루카 브레샤 (前)사장의 임기 마지막 날로써 폴리미래 직원 및 가족들과 그 동안 함께 해 온 시간들을 추억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60여 명의 본사 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맛있는 저녁식사와 행운권 추첨 등을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장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준비되었던 여행 상품권의 행운은 정승호 팀장에게 돌아갔다.

저녁식사 이후에는 블루스퀘어를 방문하여 뮤지컬 '킹키부츠'를 관람했다. 이 날 참석했던 가족들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그 연령대가 다양했지만 킹키부츠의 화려한 춤과 노래, 그리고 코믹한 대사와 제스처 등으로 긍정적인 감상평을 남겼다.

인사 · 노사협력팀 김가영 과장



행운권을 추첨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직원들

## 2016년 직원인식조사 및 스트레스요인 측정 실시

우리 회사와 직원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영역의 현황을 정략적, 정성적으로 측정하고, 변화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 회사는 매년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 팀문화, 직무만족도, 피드백 및 코칭 영역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직원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원인식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측정하고 근로자 개인과 직장 내 집단적 스트레스요인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이 실시되었다. 상세한 분석내역은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며, 특정한 추이가 발견된 이슈와 주목해야 할 영역은 별도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다.

인사 · 노사협력팀 전규범 팀장

## 인사동정

### 임원 인사발령

2016. 11. 1부

대표이사/사장 말티노 가벨리치

### 부서/보직변경

2016. 6. 1부

공무팀장 최석조

2016. 6. 15부

생산2팀 이용하

안전환경팀 박 철 (파견근무 종료)

### 정년퇴임

2016. 6. 30부

공무팀 위정환

2016. 7. 31부

생산2팀 김유곤

### 퇴사

2016. 9. 16부

생산1팀 이용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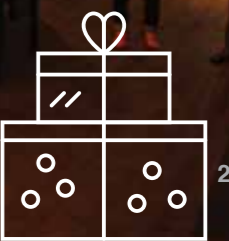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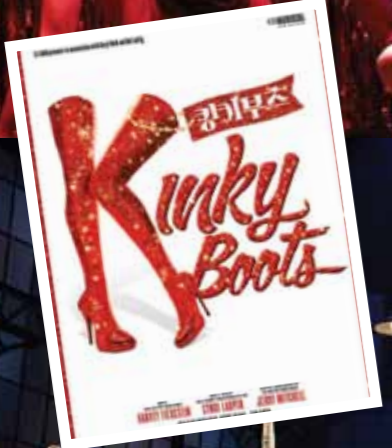
# 킹키부츠와 함께 한 서울 본사 가족의 날



나의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님이,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나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웃고 즐기는 시간  
올해도 어김없이 폴리미래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가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본사 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날을 함께 구경해 보시겠어요?

본사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는 한남동에 있는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블루스퀘어에서 '킹키부츠' 뮤지컬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잔루카 (前)사장님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함께 해 온 시간들을 추억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새로 부임하신 말티노 사장님을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님은 자신이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폴리미래의 열정적인 직원들과 긍정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이미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앞으로 폴리미래의 성장에 대해 큰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식사와 함께 진행된 행운권 뽑기 행사에서는 CEO 특별상품으로 마련된 여행상품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릴레이 제비뽑기를 거쳐 치열하게 선정된 4명의 직원들이 긴장감 가득한 가운데 해적룰렛게임까지 한 끝에 정승호 팀장이 행운을 거머 쥐었습니다. 맛있는 덤섬과 퓨전 중국요리로 모두를 즐겁게 만들었던 저녁식사부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박수치고 들썩이며 신나게 관람한 뮤지컬 킹키부츠까지 뜨거웠던 현장의 분위기를 사진으로 함께 전해 드립니다.

본사 family day



<출처: CJ E&M>

<출처: CJ E&M>

## 여수공장 한마음 체육대회

여수공장에서는 매년 체육대회를 열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일에 비가 와서 급하게 실내 체육관 행사로 변경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직원 및 가족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행사 타이틀에 걸맞은 즐거운 체육대회가 되었습니다.

배구 및 족구, 단체줄넘기, 커플 링보, 여성 팔씨름 대회 등 다채로운 운동 경기들이 개최되는 가운데 유머와 위트가 돋보였던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참가자들은 폭소를 터뜨리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우승을 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버블슈트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는 신진철 사우의 배우자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실력을 과시하며 다른 선수들을 튕겨내어서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말티노 가발리치 사장님의 딸 발렌티나 양이 장기자랑 댄스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준비된 많은 상품 가운데 사장 특별상이었던 특별여행 상품권의 행운은 생선3팀의 황훈 팀장, 생선1팀의 김기신 사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체육대회에 빠질 수 없는 백미는 역시 맛있는 음식과 사람들과의 대화였지요.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 행복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과연 행복해 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실내 체육관에서 실시되는 등 다소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사고 없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되었던 체육대회로 직원간, 또 직원과 경영진 간 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여수 공장 체육대회

2016 폴리미래 한마음 체육대회  
2016년 10월 8일

여성 팔씨름이라고  
살살할거라  
생각하면 오산!

발렌티나~  
잘 할 수 있지~

한마음 체육대회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아자아자 파이팅!  
우승은 우리 것!

댄스경연대회 우승은  
바로 나, 발렌티나

튀겨간다~팡!팡!  
버블슈트에서 이리저리  
어디로 튕길지 조마조마

# 우리 마음에 그린 사랑, 문수동 벽화 그리기

안전모를 잡고 공구를 만지던 투박한  
우리의 손으로, 어쩌면 일상에 지쳐  
메말라버렸을지 모르는 건조한 우리의  
감성으로 과연 멋진 벽화를 그려낼 수  
있을까?

폴리미래 여수공장의 직원들이 나섰습니다.  
으스스하고 스산해서 찬바람 불면 더  
춥게만 느껴지던 우리 지역을, 보기만  
해도 꿈과 희망이 느껴지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낸 벽화그리기 현장으로  
다함께 가보실까요?



올해 여수공장의 직원들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문수동에 벽화  
그리기 활동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평소 생활 쓰레기가 자주 쌓여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지역과 모 아파트 주변의 우범지역들이  
코끼리가 하트를 발사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민들을 바라보고,  
물고기들이 하늘을 날기도 하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거리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종일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하고 때로 운동을 하며 몸을  
부대끼기도 하지만, 그림 그리기와 같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감성적인  
활동을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에게도 매우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벽화를 그려 넣은 문수동의 지역 주민들도 그리기를 진행하는 동안  
곁에서 지켜보며 격려해주시고 완성된 벽화를 보고 기념 사진을  
찍는 등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이어서 우리 직원들의 보람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붓을 들고 벽에 색을 입히는 모습이 피카소 못지 않은 우리  
직원들의 활약이 내년에도 계속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 하나 그림 하나, 사랑 둘 그림 둘...  
폴리미래봉사단의 벅대한 하루!



문수동 지역 벽화가 하나씩 하나씩 완성 될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사랑이 쌓여 갑니다.



# 사랑으로 만든 책가방으로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다



본사도 올해는 공장 못지 않게 특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바로 월드쉐어에서 진행하는 참여형 기부캠페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형 기부캠페인이란 기부와 봉사를 함께 하는 신개념 봉사활동으로써 자신의 손으로 기부 물품을 만들며 어려운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동시에 사랑과 나눔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수혜자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를 전달하기도 하는 보람된 활동입니다.

이날 우리 회사 직원들은, 책가방도 없이 학교에 가는 저개발 국가 아이들의 어깨에 예쁜 책가방을 걸어주고자하는 취지에서 책가방 만들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책가방 만들기 키트를 받아든 직원들은 쉬워 보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막상 바늘에 실을 꿴고 한땀한땀 가방을 제작하기 시작하니 행여 비뚤어질까, 튼튼하지 않아 찢어지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며 각자 장인 정신이 깃든 자신만의 명품 가방을 제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인인 말티노 사장님이 제작하는 가방은 무조건 최고 품질의 'Made in Italy'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사장님 역시 누구 못지 않게 집중해서 바느질을 하시며 예쁘게 완성된 가방을 보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가방의 색깔이 밝고 경쾌하고 모양도 어찌나 예쁜지 그 안에 새 학용품을 넣어 학교에 메고 갈 아이들의 기분이 얼마나 날아갈 듯 할지 짐작이 되어 뿌듯했습니다.

월드쉐어에서는 이 외에도 양말로 제작되는 코니돌 인형을 만들어 기부하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인형을 기부한다는 사실이 새로울 수 있지만, 코니돌 인형은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이 신체의 아픔보다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준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도 월드쉐어 홈페이지를 통해 코니돌 키트를 구입하여 제작, 기부 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양말인형 코니돌



지구촌 저개발국가 아동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책가방을 만드는 폴리미래 임직원들





회사는 지난 6월, 작년에 실시한 1 Winning Team Day 프로그램에 이어 1 Perfect Winning Team Day라는 이름으로 충남 부여에서 1박 2일에 걸쳐 전 직원 집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CEO 특강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의 첫 순서에서 잔루카(前)사장은 안일함을 배척해야 하는 이유와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폴리미래의 비전과 미션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경영 모델이었던 3P(목적, 성과, 원칙)를 4P(목적, 성과, 원칙, 완벽)로 업그레이드 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팀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직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빙고올림픽'을 진행하였다. 사무실을 벗어나 머리를 식히면서 개인적이나 조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장벽을 깨며 공동체로서의 스킵과 소통,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튿날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자기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일상을 다르게 보며 나를 개선하는 마인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웠다. 이 날 강의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는데 직원들은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였다. 멀리 떨어진 두 도시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어깨를 얹어 안고 우리가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완벽한 한 우승팀의 날'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맞이할 미래도 그 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던 만큼 밝고 열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리라고 기대해본다.

## 1 Perfect Winning Team Day 완벽한 한 우승팀의 날



“우리 회사는, 우리 직원들은 이미 한 우승팀입니다.” 잔루카 브레샤(前)사장은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 우승팀이 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려면 현재에 안주하는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완벽을 추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이번 행사의 타이틀을 ‘완벽한 한 우승팀의 날’로 정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직원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이뤄온 성과에 대해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CEO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 청춘과 낭만의 대지, 몽골



패지와 넓은 구경도 할 수 없지만 독수리와 송골매가 손 위에서 춤추고 낙타와 염소가 맛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몽골, 해가 떠오른 쪽으로 삼십분! 다시 해를 등지고 서쪽으로 두 시간! 하루를 꼬박 달리고 달려도 끝없이 똑같은 풍경과 지평선, 정해진 길 같은 것 없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은 해와 시계뿐만이 그곳 칭기즈칸의 후계인 유목민들과 그들의 동반자인 말, 낙타, 그리고 양떼와 함께 한 10일간의 몽골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인사 · 노사협력팀 김가영 과장



## 2016 Mongolia travel

바안자(Bayanzag)  
수천만 년 전 백악기 시대에 공룡의 서식처였고, 지금도 공룡의 화석이 출토되는 곳으로 불타는 절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몽골의 게리는 나무로 엮은 벽에 양털로 만든 펠트와 하얀 천을 씌워 만든 유목민들의 이동식 텐트가옥이다.



공원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테를지 국립공원



푸르공 - 소련군이 도로가 없는 시베리아에서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승합차.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인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푸르공은 필수다.



비오고 난 후 아침의 무지개



✈ 2016 Mongolia travel

몽골의 드넓은 하늘과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 사이에서 하나의 점처럼 서 있는 우리들, 신비롭고도 낯선 몽골의 민낯을 그대로 느끼는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 쿵쿵쿵쿵, 숨 쉴 틈이 없다.

믿을 수 없이 크고 아름다웠던 북두칠성



몽골의 전통음식 허르헝



몽골의 흔한 송골매



홍고린엘스 모래 언덕의 석양



게르에서 우리를 재워준 어린 주인 부부

# “좋은 회사에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생산1팀 배지형 사원

2016년 폴리미래 새 가족이 된 배지형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생산 오퍼레이터로 입사하게 된 배지형입니다.”

제 고향인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때, 여수의 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화학 현장전문직이라는 직업을 갖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목표였는데 그런 제가 현재 폴리미래라는 멋진 회사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도 가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폴리미래의 첫 면접을 봤을 때 단번에 회사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봐왔던 회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이 많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면접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알 수 있었고 면접관님들의 말투 하나하나에서는 인간미가 느껴져서 이런 회사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될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2차 면접 때에는 윤기엽 공장장님과 이영숙 부장님이 면접관으로 오셨는데 경직된 면접이 아닌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어서 꽤나 긴 시간이었지만 면접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버린 평생 잊지 못할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제가 꿈꾸는 직장의 모습은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따뜻한 사람들과 웃으며 일을 한다면 출근하는 발걸음이 집에 가는 것처럼 정말 가볍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신입사원으로써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편할 수만은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난 뒤에는 제가 꿈꿔왔었던 정말 가족 같은 회사를 폴리미래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선배님들께 인사를 드릴 때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신입사원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선배님들께서 장난삼아 토익이 만점이나 아이큐는 도대체 몇이나 등등 재밌는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가 뽑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꼬리표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덕분에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한 인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모님께서 저의 합격 스토리를 꺼내시며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우리 회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폴리미래라는 사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지만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확실하고 빠르게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폴리미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현장전문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폴리미래라는 한 지붕 아래서 선배님들과 앞으로 수십 년의 회사생활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인연으로 늘 가족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의 성격이 많이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제가 먼저 선배님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선배님들과 함께 폴리미래를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reating polypropylene, shaping a better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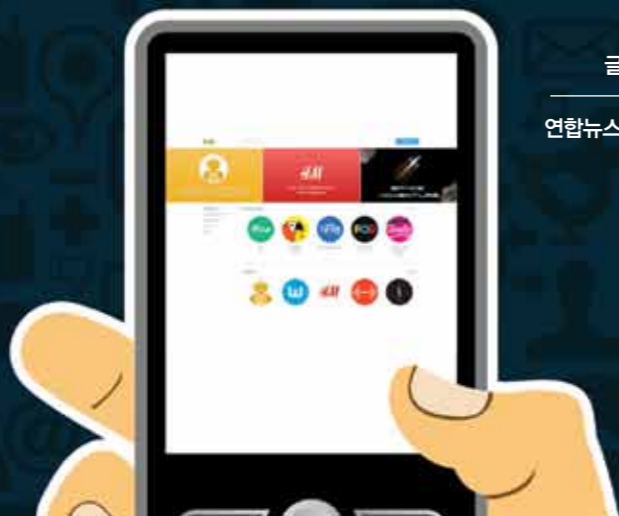


절대로 고개를 떨구지 말라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라  
- 헬렌 켈러 -



# 지는 '앱', 뜨는 '봇'

## 인공지능 메신저 '봇'... 채팅으로 쇼핑, 검색 '척척'



글 김영대

연합뉴스 월간마이더스 기자

### “앱(app)의 시대는 갔다, 이제 봇(bot)의 시대가 왔다”

지난 3월 열린 마이크로소프트(MS)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16’에서 사티아 나델라 MS최고경영자(CEO)는 봇이 맞춤형 디지털 비서가 될 거라며 이와 같이 단언했다. 봇이란 대화를 통해 사람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인공지능(AI)과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며, 대개 메신저 형태여서 ‘채팅봇’ ‘챗봇’이라고도 불린다.

#### 웹 > 앱 > 봇

인터넷 대중화의 일등공신은 웹(web)이다. 정보를 시각화한 웹은 복잡한 프로그램 명령어를 몰라도 클릭만 할 줄 알면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해줬다.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금세 찾아주는 야후, 구글, 네이버 등 검색포털은 웹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앱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한 번의 터치로 쉽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뉴스, 쇼핑, 검색 등에 특화된 앱이 나오면 바로 내려받고 새로운 경험을 즐겼다.

스마트폰 시대가 10여 년이 흐른 현재, 앱 사용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이 증가했다. 데이터분석업체 액티베이트에 따르면 전체 앱의 4분의 1가량은 한 번만 실행된 후 바로 삭제되거나 방치되는 실정이다. 실행이 편리한 반면 한 가지 기능만 되는 앱의 폐쇄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봇은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채팅하듯 ‘일주일간의 일기예보를 알려줘’ ‘요즘 인기있는 게임은 뭐지?’라고 입력하면, 시가 해당 정보를 검색해 대화창에 결과물을 바로 띄운다. 뉴스를 보여주고 쇼핑을 돕고 금융거래까지 지원하는 ‘디지털 비서’ 봇 하나면 굳이 여러 앱을 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봇이 주목받는 부차적 이유는 아직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법에 딱 맞지 않고 발음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어체 음성명령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음성보다 인식률이 높은 문자에 기반한 봇이 당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다.

#### 새 영토, 봇으로 달려가는 IT 기업들

미국 10대들에게 인기가 높은 메신저 ‘킵(Kik)’은 최근 화장품, 의류, 기상예보 등 16개 회사가 참여한 ‘챗봇숍’을 열었다. ‘@회사명’을 앞에 붙여 질문하면 해당 회사의 봇이 답을 준다. 예컨대 “@H&M 오늘 어떤 옷이 어울릴까?”라고 물으면 H&M의 봇이 적당한 옷을 추천한다.

구글, 페이스북, MS 등 ‘IT 공룡’들은 자체 메신저에 봇을 서둘러 연계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봇을 만들도록 봇 개발도구도 경쟁적으로 배포하는 상황이다. 봇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MS는 자체 봇 ‘샤오빙(小冰)’을 중국 최대의 메신저 ‘위챗’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위챗 이용자들은 대화창에서 바로 호텔·병원·식당 예약, 영화표 예매 등을 할 수 있다.

가령 대화창에 음식사진을 띄우면 “맛있게 보여요”라는 답변과 함께 주변 맛집을 추천하는 식이다. MS는 봇 개발도구 ‘MS 봇 프레임워크’도 최근 공개했다. 세계 최대 메신저 페이스북은 지난 4월 메신저와 연계할 수 있는 봇 ‘판초’를 공개하고 판초 개발도구인 ‘봇 프레임워크’도 배포했다. 판초는 일기예보와 연계된 옷차림 추천, 꽃배달, 교통상황 안내, 쇼핑물 추천 등을 할 수 있다.

5월에는 구글도 봇 기반의 메신저 ‘알로’를 선보였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 맥락을 파악해 적당한 답변을 제시하는 스마트 응답 기능이 주목받았다. 봇이 인간관계 향상에도 기여하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지난 3월 선보인 AI ‘라운’을 네이버 앱과 주니어 앱, 네이버톡톡 등에 적용해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톡톡은 온라인 상점의 점주가 소비자 질문에 답하는 데 쓰이고 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도 봇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봇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내년 초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도 금융상담 봇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대 이준환 교수는 “봇 메신저가 개인 일상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사례는 계속 늘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봇이 이용자의 욕구를 폭넓게 이해하는 인공지능 ‘중개자(agent)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른 그림 찾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두 사진 중 다른 부분이 5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메일(gy.kim@polymirae.com)로  
응모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응모 시 반드시 이름, 상품을  
배송 받으실 주소를 기재 바랍니다.



## 통권 37호 정답 및 당첨자 발표

### ▶ 당첨자

김남균 사우, 백지원 사우, 손민숙(김정훈 사우 배우자), 서영훈 사우, 임유화(주)랩코, 이해영(함수형 사우 배우자)



멜트블로윈의 혁명,  
메토센과 함께 시작하세요!

## Metocene Melt-Blown



일반 멜트블로윈보다 우수한 섬유 인장강도, 깨끗하고 탁월한 작업성, 낮은 공정온도로  
부직포제품 개발 또는 가공성 개선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쟁력을 Metocene 제품에서 찾으세요